

범우출판포럼, 일제강점기 해외 한민족 출판 연구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

범우출판포럼(회장 부길만)은 지난 10월 20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해외 한민족 출판에 관한 연구를 대주제로, 제1주제는 순천향대 박몽구 외래교수가 '디아스포라 극복과 재일 한국인 출판'을 발표했으며 제2주제는 도서출판 북산책 김영란 대표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연구 전례가 적었던 이민 초기 미국 이민사회의 인쇄 및 출판을 연구한 김영란 대표의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1. 근대식 활판 인쇄술의 발명

미주에서 출판물을 발간하려면 우선 한글로 된 주자와 인쇄기가 필요했다. 모국에서 근대 신문의 영향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초기 이민의 지식인들은 1905년 11월 22일 '공립신보'를 만들 때 일일이 손으로 쓰고 등사를 해서 매주 1회 발행했다. 내용은 일제의 침략행위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교육과 실업진흥, 독립전쟁 준비 등을 강조하는 기사와 논설이었다. 그 후 석판인쇄¹⁾로 신문을 간행했고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이 나자 인쇄기구가 다 타자 30분 거리에 있는 오클랜드로 건너가서 속사판으로 서너 호를 출판하다가 4월부터 활자신문을 발행했다.²⁾

발행인 최정익은 '신한민보' 40주년 기념호에서 처음 신문이 나오던 때를 회상하며 일주일에 한 번 각처로 발송하다가 개개인이 깡그리 독자가 되었다고 했다.

1) 석판인쇄는 인쇄면이 평평한 평판인쇄(Planographic printing, Lithography) 방식으로, 평평한 판(plane)이나 화학적 처리가 된 평평한 표면(flat surface)를 이용하는 인쇄로, 화선부와 비화선부가 같은 평면위에 형성되는 인쇄판 인쇄이다.

2) 「신한민보」 창간 13주년 기념 연설 「신한민보」 1918.11.21.

광무 十一年(1907년) 四월에 비로소 공립신문에 활자를 사용하니 동포의 열정이 진실로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후로 점점 확장하여 내지와 원동 각처에 3~4000장 신문을 발행하고 매일신보사에 수전사무소를 설치해 해외 한인단체가 처음으로 내지로 보냈다.

맨 처음 미주에서 국문 인쇄기술에 도전한 사람은 이원익이었다. 1902년 미국으로 갔던 그는 국문사자기(國文寫子機) 기계제작에 몰두하다 1907년 기계를 만들었는데 고국에서는 그 소식에 크게 기대를 걸었다. 「황성신문」은 제3130호에서 ‘국문기구 신발명’이라며 ‘미국의 이진이 4~5년 동안 국문기계를 연구하여 비로소 성공하였는데 아용이 기묘해 우리나라에서도 곧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기대를 걸었다.³⁾ 하지만 한글을 영어처럼 쓰게 만들어 사용이 어려웠다. ‘공립신보’는 1907년 4월 26일에 주자를 구입하고 제2권 1호부터 활판인쇄로 국문을 찍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면이 선명해졌다고 했다. 그것이 이원익이 만든 것으로 찍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간 2주년이 되는 11월 20일부터는 그동안 붓으로 쓰던 것을 주자로 출판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사고(社告)를 냈다. 그 기념으로 지면도 확장했다.⁴⁾

19010년 이원익은 다시 기계를 만들었지만 배자를 잘못해서 소용이 없게 되었으나 1911년 겨울 다시 도전했다. 서재필의 조언으로 국문기계를 만들 수 있는 스미스 프리미어(Smith Premier) 기계제작소를 찾아가서 작업한 후 마침내 1912년 5월, 72개 한글 글자로 4627개 문자를 만들어 국문 글씨를 쓸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⁵⁾ 하지만 기계 제작과 판매권을 가진 뉴욕 ‘레밍톤 타이프라이터(Remington Typewriter)’ 회사가 제작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⁶⁾ 이원익의 인쇄기계 발명은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한인이 처음 도전했던 대단한 업적이었다. 당시 한국은 인쇄 장비와 시설, 활자 등을 모두 일본에서 수입했고 설비는 일본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혹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인쇄 활판소의 지점을 통해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 같다. 1909년 155호 ‘社告’를 보면 당시 ‘신한민보’는 자체 출판시설이 없이 서양사람 인쇄사에서 찍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다른 문화보다 특히 출판문화가 발달했던 것은 교육과 출판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출판을 위한 한글 주조는 일본에서 들여와야만 했다. 인쇄기구 구입과 기금조달에 대해 ‘공립신보’ 1907년 4월 26일 자에 한글 글자 주조를 구입했다는 것을 밝혔고 교포들의 의연금 1013원으로 인쇄기를 샀다고 했다.⁷⁾ 1908년 1월 8일부터는 신문기계 구입을 위해 모금을 벌였는데, 162원을 시작으로 1년 만인 1909년 1월 29일에는 973원을 모금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초기 이민이 경제력과 기반 없이 시작한 신문사였으니 재정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였으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신문 출판은 성원했다. ‘공립신보’는 1905년 11월 20일 창간부터 1908년 1월 31일까지 약 2년 2개월간의 재정결산서를 신문에 게재했다.⁷⁾ 수입은 보조금이 1403원, 신문대금이 1132원91전, 광고료 156원65전, 인쇄수입 14원15전로 2706원71전인데 반해 지출은 3756원62전로 약 2년 2개월 만에 적자가 1049원91전원이었다. 이것은 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출판 주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문발행을 추진한 결과였고, 특이한 점은 보조금이 신문대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교민들의 신문에 대한 지지도를 짐작하게 한다.

3) 「신한신보」 1909.7.21. 「황성신문」은 ‘근대식 인쇄 지식의 소개가 이루어져 미국에서 우리 동포에 의해 국문인쇄기계가 발명되었다’고 했다. 이진은 이원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4) 「공립신보」 1907.11.8.

5) ‘국문 쓰는 기계 신발명」 「신한민보」 1912.6.17.

6) ‘성공자 이원익군」 「신한민보」 1912.7.22.

7) 「신한민보」 1907.11.8. 별보

8) 「신한민보」 1908.3.25. 공립신보사 재정결산서(1905.11.20~1908.1.31)(단위:원:전)

1906년의 경우 신문 한 장에 5전에 우송비는 1전을 받았다. 한 달에 두 번 발간하니 한 달 구독료는 10전으로 1년 구독료는 1원 20전인데 선금으로 1원을 받았다. 신보발송우표비가 293원42전로 당시 1전이던 우송비를 감안하면 300명 가까운 신문 구독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신문대금에 대한 재촉 광고는 외상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독자 또한 훨씬 많았을 것이다.

‘공립신보’는 한 번에 3~4천장씩 발행해 본국과 원동으로 보냈는데, 1907년 9월에는 해삼위 동포들과 비로소 글로 통신이 연결됐다며 기뻐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각지로 발송하면서 점점 독자가 늘어나자 우송비도 늘어났는데, ‘공립신보’는 신문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은 없고 우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신한민보’는 독자들에게 꾸준한 특별광고로 도움을 청했고, 초기 이민은 단체와 신문에 대한 지지도와 믿음으로 성금 내는 것을 의무로 알다시피 했다. 1907년 ‘공립신보’ 별보란에 어려운 상황을 알리자 고국의 평양 여자들 주체로 의연금 모집 발기서를 만들고 성금을 모았다.

1910년에 신문을 유지하는 4년 동안 경비가 만 2천 원 가량 들었으며, 1912년 일 년 치 신문대금 수입은 637원 10전이였다. 대한인국민회의 북미지방총회 한 달 결산보고서 중 1913년 10월 출판물에 관한 것만 보면, 수입 중 신문대금이 90원 37전, 지출에는 종이 값이 15원 25전, 인쇄비가 14원 75전 발송비가 19원 50전이다. 북미지방총회는 대한인국민회가 있고 ‘신한민보’가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당시 총회 구역 안에 동포가 1천 5백 명은 된다고 했다. 한 달 신문 대금이 90원으로 그것을 평균으로 친다면 일 년 신문대금은 1080원으로 1912년의 수입 637원 10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1912년과 1913년 신문 수입금은 600원 이상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인이면 누구나 대한인국민회 회원이 되기를 권장하고 매달 5원의 의무금을 내도록 했는데 그 수입이 1162원이었다. ‘신한민보’는 가끔 신문에 월별 결산보고를 내어 독자들이 신문 출판에 따른 사정을 파악하도록 했는데, 구독료가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며 신문사 운영을 위해 선금 구독을 간절히 요청했다.⁹⁾ 신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1년이나 지나면 신문 발송을 하지 않았지만 후에는 2년이 지나도 대금 지불을 하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았다. 1~2년씩 신문대금을 내지 않고 신문을 보게 한다는 것은 신문 발간이 상업적 목적만이 아니었으며 출판 주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독자들의 신문구독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누적이 재정적 어려움을 유발시키자 신문사 ‘유지단’(有志團)을 만들어 누구든 50원 이상 유지기금을 내는 사람은 신문에 커다란 사진을 실어주고 이름과 원적 등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실어서 치하했다. 그 외에도 신문 발행을 위한 성금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매 신문에 게재했는데, 매년 6원씩 내기로 약속을 한 리병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일 년 약조와 성금을 미전역에서 25전부터 많게는 200원까지 보내왔다.¹⁰⁾ 어려움 속에서도 ‘신한민보’가 오래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단체 주역들과 출판물 발행에 대한인국민회¹¹⁾ 같은 단체나 기관의 지지, 그리고 꾸준한 독자층 형성으로 의식 있는 독자들의 지속적인 성금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됐기 때문이다.¹²⁾

‘신한민보’와 「대도」 주필로, 언론인이요 목사이던 북미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이대위는 일제의 국문주자 제조 및 발매금지법 제정되자 국문주자 제조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또한 학문을 서양 사람과 같이 발달 시키려면 신문 서적 출판 속력이 서양 기계와 같고 경비가 적게 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주자를 찍어서 서적을 출판하니 속력이 5~6배 더디고 인공이 많이 들고 서적 값이 비싸지니 보는 사람이 적어 학

9) 「신한민보」1913.7.4. '만일 우리 총회 구역에 있는 동포가 일제히 신문 한 장씩만 선금을 보내고 보면 1천 5백 장은 될 터이니, 3천 원에 달할 것이요, 의무금을 제때에 보내면 7천 원에 달할지라... 어찌 1년에 7원씩 내서 사회가 풍부할 것을 아니하고 다만 하는 사람의 등에만 짐을 얹어 곤고하게 하리오.'

10) 「신한민보」1909.6.2

11) 1909년 2월 1일 하와이와 미주 본토 한인단체들이 통합해 '국민회'를 창립하고 2월 10일부터는 '공립신보' 대신 '신한민보'(The New Korea)로 명칭을 바꾸어 발간했다. 1910년 5월 10일 국민회는 대동보국회가 합쳐져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가 되었다. 1912년 대한인국민회는 4차 지방총회 관하여 116차 지방회가 있었다.

12) 대한인국민회에서 180 달러를 보조했고 개인들은 신한민보 유지회에 50원을 기부했다.

문이 빨리 발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서양 사람과 같이 빨리 출판하고 장차 학문을 발달시키기 위해 국문이 25개의 자모음으로 된 것을 온전히 쓰고 아래로 받침만 따로 하면 200자에 달한다며, 이를 모노타이프 셋팅 머신으로 식자하면 225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냈다. 1915년 3월 1일에는 오랜 연구와 실험을 거쳐 한글 식자기를 발명했다. 손으로 일일이 활자를 하나씩 뽑아서 조판하는 문선 과정의 인쇄에서 문명 세계로 진입을 뜻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대위는 한글 식자기를 만든 후 교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지금은 174자를 만들었지만 80자 이하로 모든 서적을 출판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대위의 인쇄기술 발명 동기는 첫째, 한글과 나라 사랑이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 모국어를 지키려는 애국심으로, 그는 한국의 정신, 사상, 감정을 박멸해 국어를 말살하고 교과서까지 불 지르더니 이제는 국문 활자 제조까지 금한다며 분개했다. 국문 활자를 일인에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문 활자 제조 연구가 한인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 보았다. 둘째, 경비 문제였다. 동양에서 국문 활자 제조하려면 상해 중국인 상무인 서판 활자 제조소에 주문하는 것이 오직 한 경로로 경비가 3~4천 원이나 들었다. 셋째, 국문을 보존해 교육과 애국계몽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

〈다음호에 계속〉

〈표 1〉 초기 이민의 신문 및 잡지 출간과 인쇄방법

제목	창간일	창간지	발행 기관과 인쇄방법
신조선문	1904.3.27	하와이	14개월 간 속쇄판으로 매월 2차씩 발행
한인시사	1905.6.10	하와이	15개월 간 속쇄판으로 매월 2차씩 발행
공립신보	1905.11.20	샌프란시스코	재미 한인사회 첫 신문 1909년 1월 30일까지 3년 2개월 간 117호 발행. 매월 2차씩 손으로 써서 석판인쇄. 1907년 4월 25일 주자 구입 주간 발행. 후에 「신한민보」로 개칭
친목회보	1906. 5.8	하와이	예와친목회 창간. 1년 간 속쇄판 발행. 월보
자신보	1907. 9.30	하와이	5개월 동안 발행한 월보
대동공보	1907.10.3	샌프란시스코	주지는 사용치 못해 붓으로 속사판에 박아 제호를 출간. 1호에서 14호까지는 필사 석판인쇄 하다가 1907년 11월 21일부터는 국문 활판으로 인쇄. 정간과 복간을 반복하다가 1909년 2월 10일 '신한민보'로 합동
한인합성신보	1907.10.22	하와이	1년 3개월 간 60호 발행. 주간신문. 속쇄판 사용하다 1908년 주자 인쇄. 1909년 2월 15일 신한국보로 합동
진흥협회보	1908. 5.23	하와이	진흥협회 창간. 10개월 동안 속쇄판으로 발행한 월보
대도	1908.12.21	샌프란시스코	미주 최초의 근대 저널리즘 형태인 한글 월간잡지. 1911년 12월 발행 부수가 1천에서 1천 2백부로 늘었으나 계속된 재정난으로 1912년 7월호를 마지막으로 정간
신한민보	1909. 2.10	샌프란시스코	공립신보와 대동공보를 인계해서 만든 신문. 처음 6년은 활자 사용. 1915년 3월 11일부터 이대위가 발명한 인터타입 식자기 사용
신한국보	1909. 2.15	하와이	1909년 2월 15일 한인합성신보를 계승한 주간신문. 1913년 8월 1일 국민보로 개칭
금일세계	1909. 8.25	로스앤젤레스	7개월 동안 속쇄판으로 발행
독립신문	1911. 7.1	하와이	영리 목적으로 창간했다 폐간된 주간신문
국민보	1913. 8.1	하와이	40년 발행된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주간신문. 활자사용하다 1949년 3월 인터타입 식자기
태평양잡지	1913. 9.20	하와이	이승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창간한 월간잡지로 17년 동안 발행
태평양시사	1918.11.28	하와이	박용만 창간 주간신문. 1926년 3월 15일까지 7년 4개월 동안 31호 발행. 1919년 3월부터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기관신문. 속쇄판을 사용하다 1920년 12월 4일부터 식자기

*출처: 『재미한인 50년사』, 『공립신보』, 『신한민보』